BIEF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Design: www.athom.fr 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Inal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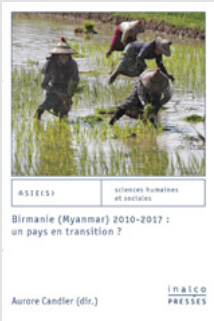
- 버마(미얀마) 2010-2017
-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희망
- 밤바라어 수업
-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
-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1866-1867)
-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
- 국제연맹의 전문성
-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
-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
- 그리스 협력자들의 시련의 역사 (1944-1949)
- 종, 대패, 괭이
- 터키어 동사 활용법
-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
-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1915-1918)
-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결혼
-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
- 여성의 무장 투쟁
-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개국의 2019년 성과표
- 크레타의 베니스

이날코

www.inalco.fr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오로르 캉디에

미얀마의 불교 민족주의 부상과 공동체 간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BIRMANIE (MYANMAR) 2010-2017 : UN PAYS EN TRANSITION ?

버마(미얀마) 2010-2017

2011년, 미얀마는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일어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으로, 인류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들이 미얀마의 사회, 정치 변화를 설명하고 국제적 관점은 물론 미얀마 내부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개혁 과정 및 불교 민족주의의 부상, 공동체 간 갈등, 로힝야족 학살 등의 주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648 | 2020 | 150쪽 | 16X24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

알렉상드르 라피에르

그리스와 터키 공동체가 대립했던 키프로스 섬의 분쟁, 그리고 정체성 논리의 수정.

CHYPRE : LES ESPOIRS DU RAPPROCHEMENT COMMUNAUTAIRE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희망

정상회담에서 타협에 실패한 이후 섬이 분할되었으나, 키프로스 섬의 다수를 차지하던 공동체인 그리스 공동체와 터키 공동체는 각자의 정체성 논리를 점진적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아직은 무너지기 쉬운 화해라는 형태였지만, 특정 정치 연설이나 시민 사회 내부에서 화합의 정신이 공공연히 표출되기도 했다. 키프로스 주민들이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단단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 내부적 신뢰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이다.

9782858312818 | 2018 | 322쪽 | 16X24 CM | 30.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발랑탱 뷔드랭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교재.

COURS DE GRAMMAIRE BAMBARA

밤바라어 수업

밤바라어는 식민지 이전에 왕국이 존재하던 세구와 카흐타에서 동부 말리 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민족의 이름은 '바마나'였으며, 언어는 '바마나칸'이라 불렸다. 한국 및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를 '밤바라어'라 칭한다. 밤바라어의 실용적인 교과서와 문법 참고서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책으로,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9782858313075 | 2019 | 596쪽 | 16X24 CM | 30.00 €

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루이즈 플뤼 카플랑
도미니크 리비에르

1945년 이후 유럽 여러 도시에서의 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

DE ROME À LUBECK ET DANTZIG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

도시 유산 정책은 1945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연구자, 미술사학자, 지리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1945년 이후 유럽 도시들의문화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을 탐구해낸 책이다. 독일의 뤼벡,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브로츠와프, 로마 등 다양한 시대 속 수많은 역사적인 도시 이야기가 담겨 있다.

9782858313235 | 2019 | 150쪽 | 16X24 CM | 25.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세실 폴슈바일러

에밀 피콧은 루마니아 왕좌에 오른 카롤 왕자의 프랑스인 비서관이었다.

› ÉMILE PICOT, SECRÉTAIRE DU PRINCE DE ROUMANIE - CORRESPONDANCE DE BUCAREST (1866-1867)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1866-1867)

에밀 피콧은 1875년부터 1909년까지 동양어학부의 첫 루마니아어 교수였다. 호엔촐레른의 카롤 왕자가 루마니아 공국의 왕좌에 오르자 피콧은 그의 프랑스인 비서관이 된다. 피콧이 수행하던 임무의 진행 상황이 드러난 사적인 편지를 통해 당시 루마니아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동유럽의 문제들에 프랑스가 개입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9782858313402 | 2020 | 280쪽 | 16X24 CM | 22.00 €

인문사회·에세이

안 비기에
에릭 메이에르
나탈리 쿠아메

현대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나간 시간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쓰는가?

› ENCYCLOPÉDIE DES HISTORIOGRAPHIES. AFRIQUES, AMÉRIQUES, ASIES (TOMES 1 ET 2)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

157명의 전문가가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기념비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과거를 기록해온 방식을 해석하며 온 세상을 탐험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을 넘나들며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백과사전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탈 서구중심주의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에의 초대장.

9782858313440 | 2020 | 1 012쪽 | 16X24 CM | 160.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샹탈 베르데이
필립 부르모
노리그 느뵈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에 관하여.

EXPERTS ET EXPERTISE DANS LES MANDATS DE LA SOCIÉTÉ DES NATIONS : FIGURES, CHAMPS ET OUTILS

국제연맹의 전문성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이고 법칙 정립적인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국제연맹은 국제 표준의 세계적 보급이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모여드는 중심점이 되었다. 다양한 규모로 얽혀 있는 구조의 '연결된 세상' 속에서 국가 간의 개방적이고 절차적인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국제연맹의 출현을 연구한 책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의 표준과 전문가들에게 부여된 미래 과제를 조명한다.

9782858313464 | 2020 | 374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1)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610 | 2017 | 563쪽 | 16X24 CM | 45.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2)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504 | 2017 | 453쪽 | 16X24 CM | 40.00 €

인문사회·에세이

디미트리 쿠수리

제2차 세계대전 말미 그리스 협력자들을 재판하는 과정.

L'HISTOIRE DES PROCÈS DES COLLABORATEURS EN GRÈCE (1944-1949)

그리스 협력자들의 시련의 역사 (1944-1949)

그리스와 유럽을 뒤흔든 사건들과 당파적 논리(민족주의자, 왕실 주의자, 반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면밀히 접근하는 책이다. 남북 전쟁과 냉전 등, 분쟁 생성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전쟁의 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아테네 협력자들에 대한 전후 특별 재판 등의 사건을 분석했다.

9782858312597 | 2017 | 446쪽 | 16X24 CM | 38.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미카엘 오랑탱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하며 당시의 과라니족과 예수회의 관계를 그려낸 책.

LA CLOCHE, LE RABOT ET LA HOUE

종, 대패, 괭이

18세기 초, 정착한 지 100년째 되던 파라과이의 예수회 선교단은 어느새 황금기에 접어들어 10만 명 이상의 과라니족이 거주하는 거대한 집단이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당시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과라니족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당시 과라니족과 예수회 선교단 사이의 독특한 관행과 정치 사회적 관계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525 | 2020 | 238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

이펙 오르테르 몽타나리

터키어 동사의 활용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LA CONJUGAISON DES VERBES TUR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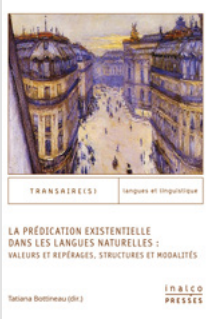
터키어 동사 활용법

이 참고서는 터키어 동사 활용법의 논리를 이해시킴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터키어 학습을 쉽게 만들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터키어에서는 접미사, 시제, 주어, 부정형 등의 부가적인 요소들이 동사를 둘러싸고 동사라는 핵을 완성시킨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의 시제 및 변형 규칙, 요약표가 포함된 터키어 동사 활용 연습 가이드.

9782858313204 | 2019 | 179쪽 | 16X24 CM | 20.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타티아나 보티노

다양한 언어에서 연구된 실존적 서술을 다루는 책.

LA PRÉDICATION EXISTENTIELLE DANS LES LANGUES NATURELLES : VALEURS ET REPÉRAGES, STRUCTURES ET MODALITÉS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

실존적 구성은 각 언어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그러므로 보편성을 획득한다. 실존적 서술은 하나의 용어를 다른 용어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특정 존재의 표식자를 사용함으로써 명제 구성 요소의 비정규적 표식을 비교하게 된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방식인 실존적 서술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서 이뤄지는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9782858313624 | 2020 | 218쪽 | 16X24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

소피 샤브 다르토엔
스테파니 롤랑 트라이나

다양한 사회에서의 조상의 사회적, 의식적, 정치적 차원에 관한 민족지학.

LE FAÇONNEMENT DES ANCÊTRES, DIMENSIONS SOCIALES, RITUELLES ET POLITIQUES DE L'ANCESTRALITÉ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개인의 운명과 역사적 사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인간 자신의 쇄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족지학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사회에서 망자를 모시는 법은 다양하다. 이 책이 제기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조상이란 무엇인가?" 라기 보다는 "조상과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중요해지고 의미있어졌는가?"라고 할 수 있다.

9782858312962 | 2019 | 338쪽 | 16X24 CM | 30.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프랑신 생 라몽

1915년 다르다넬스로 파견되었던 프랑스 군인들의 생활과 전투에 관한 생생한 증언.

LES DÉSORIENTÉS SOLDATS FRANÇAIS D'ORIENT (1915-1918)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1915-1918)

1915년, 8만 명이 넘는 프랑스 병사가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파견되었다. 정부는 주저했었고 병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염려하며 떠난다. 그리고 다르다넬스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 동방,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단어들이 병사들의 문학적 영감을 자극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검열되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언론도 침묵하던 병사들의 서신이 공개된다.

9782858313006 | 2019 | 295쪽 | 16X24 CM | 30.00 €

인문사회·에세이

카트린 캅트빌 쟁
델핀 오르티스

사랑과 제도: 아시아와 인도양의 여러 사회에서 찾게된 낭만적 사랑과 전통 사이의 타협.

LES INSTITUTIONS DE L'AMOUR : COUR, AMOUR, MARIAGE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결혼

전통 사회에도 사랑이란 것이 있었을까? 아시아(중국, 한국, 일본, 네팔, 인도)와 인도양의 다양한 사회에서는 서구적 관습에서 영감을 받은 개인적인 애정 표현과 전통적 사회 규범 사이의 타협안이 탄생했다. 낭만적인 사랑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랑이 가족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타협안은 해당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결혼의 의식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9782858312795 | 2018 | 371쪽 | 16X24 CM | 35.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마샤 이츠하키

근·현대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는 동일한 것인가?

MAINTENANT ET À JAMAIS - QUELQUES REGARDS SUR LA POÉSIE HÉBRAÏQUE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에 따라? 역사적 기준? 정치적 기준? 언어학적 기준? 국가 이전의 문학과 국가 이후의 문학으로 구분하던 관습을 지속해야 하는가? 현대 히브리어의 특별한 역사, 시오니즘, 쇼아 등이 '시'라는 장르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대 히브리 시의 표현 속에 국가적 내러티브의 위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9782858313181 | 2019 | 130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

알렉상드라 프레노
카롤린 지베르 라파예

1960년대 말의 정치사회적 시위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다.

S'ÉMANCIPER PAR LES ARMES ? SUR LA VIOLENCE POLITIQUE DES FEMMES

여성의 무장 투쟁

1960년대 말, 남성들과 여성들은 각각 서구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극좌에 위치한 무장 집단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주장했다. 사회적, 정치적, 젠더적 차원을 넘나들며 여성의 무장 투쟁에 관한 학제 간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책이다.

9782858313273 | 2019 | 238쪽 | 16X24 CM | 25.00 €

이날코

인문사회·에세이

장 피에르 파제
쥘리앙 베르쾨이

프라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9개국의 경제, 사회 및 정치 발전 성과표.

TABLEAU DE BORD DES PAY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ET D'EURASIE 2019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 개국의 2019년 성과표

학계, 컨설팅, 공공 행정 분야의 12명의 전문가가 29개의 국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경제, 사회, 정치, 지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별 주요 발전을 되짚어보고 각국의 사회 변화를 조망한 책.

9782858313259 | 2019 | 184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

조엘 달레그르

크레타는 13세기 초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거의 5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VENISE EN CRÈTE

크레타의 베니스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고, 좋은 땅을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들의 행정과 규칙, 세금, 정의, 종교, 언어, 사회 분리, 경제 원칙 등을 이식했다. 또한, 중앙 집중식으로 통제되지만 시간이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진화하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크레타섬의 식민지화 과정을 통해 식민지개발 계획의 진정한 그림을 그려낸 책이다.

9782858313013 | 2019 | 372쪽 | 16X24 CM | 30.00 €